**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기독교 행동 출범을 위한**

**파키스탄 홍수 긴급 재난 지원 요청서**

6월14일부터 발생한 파키스탄 홍수는 3천3백만의 이재민과 수천명의 사망,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난이 되었습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홍수이후 각종 전염병에 노출된 이재민들에게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댕기 열병이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과 복음전파를 위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발루치스탄의 잘 마을**

발루치스탄 주의 잘 마을은 외부의 지원에 소외된 지역으로, 이 지역 출신인 제자로부터 긴급한 지원을 요청받아 한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372가구가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집터만 남아 맨땅에서 밤하늘을 보며 비닐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를 어떤 가정은 어머니를, 혹은 아이들을 잃은 이들이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마을은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도움이 잘 전해지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음식과 물, 기본 의약품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소 3개월간 이들에게 먹을 식량 만이라도 보내 준다면 흙과 지프라기, 나무들로 무너진 집을 짓고 이 흙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 3 개월간 372 가구의 식량지원을 위해 우선 사용되고, 그 후에는 주택지원과 학교개설과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성심을 다해 사용될 것입니다.

식량지원: 1 가구 1 주일 1 만원

주택지원: 1 가구 10 만원

학교개설과 운영: 1 달 100 만원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잘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과 마을, 학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인영 선교사

연락처: 김인영 선교사 (010. 2182. 0908. paul.kim65@gmail.com)

긴급헌금: 시티은행 350-49723-262-01 (예금주: 김인영)

기부금영수증 발행 계좌 : KEB 하나은행 010 04 06391553 (예금주: GMS)